

서평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제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

김영숙 _ 아주대 강사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在特会・外国人参政権・東アジア地政学』, 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일본에서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등의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분석하는 저작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의 『ネットと愛国』(한국어 번역판은 『거리로 나온 넷우익』)이다.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는 야스다의 취재활동과 저서의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과연 불만과 불안만으로 내셔널리즘에 빠져드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야스다에 대한 반론을 전제로 치밀한 분석을 전개한 책이 『日本型排外主義—在特会・外国人

參政權·東アジア地政学』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책의 부제인 재특회, 외국인 참정권, 동아시아 지정학으로 확대되며, 이를 토대로 목차가 구성되었다. 제목의 ‘배외주의(排外主義)’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타자에 대한 배척, 즉 외국 또는 외국인 배척을 의미한다. 유럽의 배외주의가 주로 이슬람을 대상으로 삼는데 비해 역사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일본적 변종으로서의 배외주의를 분석하였다.

목차는 프롤로그, 서장-8장, 에필로그, 자료 소개로 구성되는데, 프롤로그에서 국가안전보장화의 개념과 외국인문제를 일본의 서쪽 끝에 있는 섬 요나구나지마의 사례를 통해 문제 제기하고, 에필로그에서 외국인 참정권 반대 결의와 자위대 유치라는 국가안전보장화의 귀결을 통해 국방에 의존하지 않는 탈안전보장화를 주장하였다.

2007년 허구의 ‘재일 특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된 재특회를 비롯한 배외주의 단체에 대한 분석이 6장까지 전개되는데, 배외주의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바탕을 두면서도 사례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재특회의 원류를 기존 우익의 일부(노하우), 역사수정주의적 우파 시민운동(계쟁과제), 인터넷우익(동원 포텐셜)이라고 보았으며, 프레임과 프레이밍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사회화(각성-돌아섬-접합-확장-증폭), 배외주의 운동에 대한 공감, 인터넷과 배외주의운동에 대한 개인적 동원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화를 거쳐 배외주의 활동가로 변모하는 경우, 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재일 특권’이라는 프레임에 공감하여 재일 코리안을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일본형 배외주의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근린제국에 대한 멸시’가 배외주의운동 발생을 촉진시켰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동아시아 각국이 적수

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우파 논단에서 근린제국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혐한의식과 재일 특권에 대한 반감은 우파 논단과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유포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입법 직전 단계까지 갔던 '외국인 참정권'문제는 서구에서는 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엘리트 주도로 실현된 데 비하여, 일본에서는 재일 코리안의 요구로 추진되었다. 국적과 시민권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이민의 정치적 통합을 피하였으나, 이민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대두하면서 2000년에 조선 국적이 배제된 이래 안전보장화가 강화되었다.

이 책에서는 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이른바 '과거의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을, 대한민국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무국적으로서의 조선 국적을 모두 아우르기 위하여 재일 코리안이라고 부른다. 재일 코리안의 법적 지위는 일본 정부-재일 코리안(데니즌과 국민국가의 관계)이라는 2자관계에서 파악되고 논의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일본, 한국과 북한, 재일 코리안이라는 3자관계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의 법적 지위는 '민족의 조국'인 한국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한국 국적자가 '협정 영주' 자격을 얻을 때 조선 국적자(무국적 조선을 포함)의 법적 지위는 방치되었으며, 1991년 출입국관리특별법을 통해 비로소 한국과 조선 국적 모두에게 '특별영주' 자격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3자관계의 최악의 귀결이 배외주의운동이며, 민족의 조국에 대한 일본 극우주의의 적의가 내셔널 마이너리티 배척으로 전환되어 나타났다 할 수 있다. 그 중 통명제도, 특별영주제도 등 허구의 '재일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하는 단체가 재특회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형 배외주의'를 근린제국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외국인 배척 움직임이라고 규정하고 식민지 청산 미흡과 전후 냉전체제

를 발생 요인이라고 보았다. 결국 ‘일본형 배외주의’는 역사수정주의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배외주의운동을 개인적 불안과 불만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야스다 고이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 책 전반에서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과 불만에 바탕을 둔 분석이 3자관계의 함정에 빠져 배외주의가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아시아 경시의 표현이라는 점과 전후 동아시아 지정학이라는 역사적인 원인을 놓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학 학술서로서 이론에 토대를 둔 배외주의 분석을 시도하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 이 책에 가치가 있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재특회, 왜 재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바뀐 것은 원서가 가진 학술서로서의 면밀한 분석을 훼손하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배외주의와 재일 코리안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현재 일본사회의 역사수정주의나 배외주의의 확산은 1990년대의 고노담화나 무라야마담화의 가능성을 어중간하게 끝내버린 대가라고 지적하면서, 이 책을 통한 자신의 문제제기를 한국에서 받아주는 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우익단체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책의 문제제기를 받아 이러한 단체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日本空間)